



## <세계문화사의 본질적인 문제와 한국과 영국의 문화사 구조의 전개>

구조주의 사회와 탈구조주의 사회  
앙티 오이디푸스의 세계에 우린 살고 있다.

- 1)역사란 무엇인가? 헤겔의 변증법적 진행의 문제
- 2)영국과 한국의 역사적 구조와 그 열개
- 3)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시대
- 4)영국의 문화사 구조와 한국의 문화사구조
- 5)개인과 역사

강의장소;

일시/ 4월 19일 금요일(4시)

장소/ 킹스톤 Starbucks , 91 Clarence St , Kingston upon Thames , London

GB-ENG , KT1 1QY

런던 시인의 문화학교는

문화, 예술, 창조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런던의 열린학 교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거리와 시장, 뒷골목을 강의실로 하는 현장 문화 학교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강좌>와 <세계 문화사와 미술사>, <미학>, <철학및 예술철학> <창조산업 분야 경영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런던 문화학교는 약 1,7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부터 현직 교수와 교사 등에서 초중고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런던 문화학교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버지니아 울프와 경제학자 존 케인즈, 평론가 로저 프라이 등이 모여 토론을 했던 런던의 중심가, 블롬스버리의 퍼브 등지에서 5회의 열린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강좌는 <감동의 기술>, <그림 값으로 본 서구문화와 한국문화의 구조, 1,2차>, <여자인가?> 등의 주제로, 현재까지 약 700여명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강사, 전하현, 시인으로 등단하고, 미학, 동양철학, 미술사 강사로 활동하며 3권의 시집등 8권의 저서를 펴냄, 그외 현대무용연출가로 무용대본작업과 연출 작업을 하고 보석디자이너와 미술평론, 문화평론 등을 신문 등 언론매체에 정기 기고하고, 런던에서 다시 미디어(영화, TV 프러덕션), 예술경영론을 전공하며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한 경력등 예술전반에 대한 실무와 이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저서/ 세계 예술사 문화사 <인상주의 >, <인상주의 2권> 책 저술, 미술사 해설서 <바르비종과 사실주의>펴냄 <스물이되기전에>저서나옴

### 2012년 주요 런던 강연회

10월 5일 강연회; 한국 사회를 진단하기 위한 <영국 사회읽기>

2번째 강연/ 영국사회로 본 한국 사회구조 9월 28일 강연회; 사회문화강좌, 범죄 드라마로 분석한 영국사회

9월 4일 강연회; 에게문명과 아마르나 문명

8월 28일, 2차 <몽크와 데미안 허스트의 102년 만의 만남> 강의

8월 17; 덜위치 갤러리, 네덜란드 미술과 17세기 프랑스의 고전주의

8월 4일; 문화예술강좌/고딕-르네상스의 하이브리드 예술

7월 22일; 문화강좌/Sex & Sexy, Fashion & Passion, Money & Desire

7월 20일; 현대미술 강좌/<몽크와 데미안 허스트의 102년 만의 만남>

6월 29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종말, 그리고 오늘

5월 30일; 20세기 문화사 강좌/ 3개의 패러다임

5월 12일; 문화기행 강좌/ 리버풀 시티에서 만나는 빅토리안 건축

3월 30일; 현대미술과 페미니즘/ 야요이 쿠사마

3월 29일; 주영 한국 대사관(런던)에서 강연회

3월 22일; 문화산업 종사자를 위한 특강/ 21세기 초두를 이끌 문화, 환상주의 (FANTASISM)

2월 28일; 현대미술강좌/ 피카소와 영국의 모더니즘 2차 강좌

2월 16일; 현대미술강좌/ 피카소와 영국의 모더니즘

2월 15일; 미술사 강좌/ 바르비종파가 바꾼 세상의 풍경들

2월 9일; 창조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양강좌/ 여자란 무엇인가?

2월 2일: 창조산업 종사자를 위한 2차 강좌/ 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1월 21일; 문화와 사회 현상강좌/ 이미지로 읽는 오늘의 사회

1월 19일; 창조산업 강좌/감동의 기술, 감동을 시켜야 뜬다!

1월 7일; 현대미술강좌/게르하르트 리히터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전개

1월 6일/ 문화예술강좌/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011 브라이튼 뮤지엄 강좌/문화예술로 본 영국인, 영국인은 누구인가?

## 1부/ 다중적 구조사회에서의 생존법

### 문제의 제기

#### 역사와 구조

1)역사란 무엇인가? 헤겔의 변증법적 진행의 문제

2)구조주의 사회와 탈구조주의 사회 왜 들뢰즈인가?  
앙티 오이디푸스의 세계에 우린 살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모든 그림과 자료는 전하현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자료로 저작권이 있는 것들입니다.>

## 일상 속에서 항상 충돌하는 두 개의 공간

그러나 공간에서 그 공간을 이해하고 넘어갈 때 우리는 수많은 충돌과 갈등을 경험하며 때로는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거야.



마치 오디세이의 항해와 같이!  
그래서 신화로 그 과정에 대한 고통을 미리 배우는 것인가?

생활을 하면서 마음 속의 공간에서 충돌하고 또 밖에서 개인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이 충돌하는 거야.

**개인적 공간**      **사회적 공간**

왜 충돌을 해야만 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선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야 하니까.

우선 자기의 본능과 욕망에서 온 것과 이성이 충돌하잖아

항상 충돌해요?  
매 순간이요?  
거의 매 순간 그것들은 충돌하지.  
왜요?

**본능**      **욕망**      **이성**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공부해야 하는 것.  
그럴 때가 잦은데..

**본능과 욕망**      **이성**

본능적 욕구와 이성이 충돌할 때 초자아적 판단이 조율하잖아.



그럼 이성이 발달하지 못하거나 초자아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본능적 욕구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그럼 갈등과 충돌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네.  
그 마음 안의 갈등을 겪은 후, 자기와 세상 혹은 속해 있는 공동체와의 갈등을 준비하는 거야.

**또 다른 충돌**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



관념 속의 공간  
내부적 공간  
(정신적 공간)



현실 속의 공간  
외부적 공간  
(물리적 공간,  
사회적 공간)

이 두 공간이  
다음 충돌하는  
거네요.

내 공간과 타인의  
공간이 만나면서  
갈등하며 충돌하니까.

때로는 조화와  
타협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내부적  
갈등을 겪은  
후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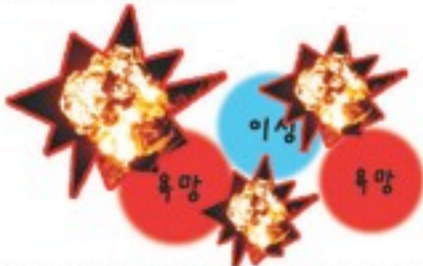
현실 속의 공간이란, 인간이 사는  
물리적 세계, 일정한 지역의 삶의 현장을  
말한다. 이 공간은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고  
생물학적 충돌과 욕구로 움직이는 공간이다.

우리는 모두 과거로부터 이어진 시간의  
공간인 역사 속의 공간에 살고,



하나의 생명체를 유지해야 하는 인간으로  
현실 속의 공간에 살며

관념 속의  
공간이 어떤  
공간이죠?



이 공간 속에서 충돌하고 갈등하며 때로는  
화해하고 조율 하며 일상을 유지해 나간다.



관념 속의 공간이란,  
현실 속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고로 오랫동안  
형성된 정신적 세계가 지배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야.





## 2)영국과 한국의 역사적 구조와 그 열개

공통점/ 다중적 문화구조 다른점/ 영국은 통합구조 문화, 한국은 습합문화구조

**영국>>** 앵글로 색슨 문화구조/ 켈틱문화구조/ 기독교 문화/ 바이킹(노르만문화구조), 그리스 로마문화구조

**한국>>** 무교문화구조/도교문화구조/불교문화구조/유교문화구조/기독교문화구조

### 영국의 사회구조와 문화 구조

#### 영국과 한국의 다층 문화구조

영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선 첫째 영국의 다문화 구조를 이해하고 둘째, 사회 계층 문화와 신분계급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영국의 문화 구조는 서구의 일반적 보편적 문화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여러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문화들이 통합 절차를 거쳐 오늘날 영국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통합 현상이 나타나지만 영국의 통합문화는 전 유럽의 문화를 함유하고 일찍 인도와 아프리카 문화를 융합하는 보편성의 길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 그 특성이다.

이런 문화구조의 특색 덕택에 영국의 많은 규칙과 정해놓은 절차가 세계 표준화가 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영국의 문화 구조가 유럽 전체의 문화 구조를 축약적으로 함유되어있고 통합의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세계 문화를 이해하기 가장 빨리 이해하기 위해 한문화를 배울 수 밖에 없다면 난 영국문화사를 추천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 문화사를 이해하면 세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영국은 유럽의 네 기본 문명과 끊임없이 통합과정을 겪으면서 서구의 보편적 문화의 기틀을 조성했다. 유럽의 기본 문명은 첫째 각 지역에 토속적으로 발달한 민속민화, 둘째 에게 문명에서 시작된 그리스 문명과 고대 로마 문명, 오스트리아 지역의 할슈탈트 지역에서 시작된 켈트 문명, 그리고 기독교 문명이다.

영국은 구석기시대부터 정착한 원인류부터 유럽에서 이주한 이베리아인, 배를 타고 정착한 이주민에 의해 농경문화가 시작 된 것은 B.C 4,000 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최근 발견된 자료로 이보다 더 앞당겨 질 수 있다. 이후 로마의 350여 년간의 지배, 북유럽에서 이주한 앵글로, 색슨족, 다시 8세기부터 이주하기 시작한 바이킹의 대니시, 1066년 헤이스팅 전투의 패배로 노르만족이 대거 이주하며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층 구조의 문화를 형성할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다층 문화의 구조는 인도를 식민지 한 후, 18세기 본격적으로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어 주도권을 확보한 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영국은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와 내부적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도 더욱 합리주의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을 만들고 사고방식도 합리적인 사고를 갖추어야만 했다. 대부분의 스포츠 규칙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다.

이와 같은 다층 문화구조는 다양한 문화가 한군데 모여 마치 비빔밥처럼 뒤섞일 수 있는 멜팅 포트 (Melting pot)적 이점을 확보해 20세기에 이르러 대중문화의 선도적 역할과 디자인 산업의 활성화를 이루는 몫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다문화구조가 영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담보인데 그것을 최근 포기하겠다는 영국 수상은 자국의 문화구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의 문화도 다층 문화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영국문화와 한국문화는 외래 문화와 타 종교 문화를 큰 마찰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단일 종교 만을 유지하고 가족들은 대부분 같은 종교를 믿는다. 외래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 비교적 저항과 반대가 강하고 때에 따라선 심각한 유혈 사태 혹은 내란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과 영국은 큰 갈등이나 강렬한 저항 없이 외래문화와 종교사상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경향은 양국민의 국민성이 실용적인 경향과 영국인의 합리적인 성격, 한국인의 융통성이 한 몫을 한 것으로 가늠된다. 그러나 영국과 한국이 다른 것은 전자는 통합문화구조적(統合文化構造的)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습합문화구조적(習合文化構造的) 특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통합문화(統合文化)란 말 그대로 둘 이상의 문화가 합쳐져 하나의 문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습합문화(習合文化) 현상이란 일방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하나의 문화가 기존의 문화와 합쳐져 절충 형으로 서로 공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의 다층 문화구조 현상은 고유문화에 켈틱문화, 후기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 로마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통합적 절차를 이루며 형성되어 오늘날 영국의 성공회란 독특한 절충식 기독교가 성립되었다.

한국의 문화구조는 더욱 복잡하다. 고대시대에 중심 종교사상이었던 샤머니즘의 전통과 풍습 위에 불교사상이 융합되고 다시 도교 사상이 그 위에 혼재되어 섞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세 개의 사상 위에 다시 유교사상이 부가되고 최근에는 기독교 문화가 습합되어,

다종교적 특성이 함께 뒤섞인 한국적 기독교 문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기독교 신학자 유동식 박사는 한국적 기독교의 타 종교와 습합현상으로 특히 샤머니즘(巫敎思想)과의 결합된 현상을 몇 가지 사례로 증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는 장독에 정한 수를 떠놓고 이른 새벽 빌던 도교적 영향을, 부흥회와 기복신앙은 무당의 굿거리적 방식에서 도입된 무교(巫敎)적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다. 불교와 무교의 결합으로 생겨난 신라시대의 화랑도 제도, 도교와 미륵신앙에 토속 신앙이 결합되어 나타났다. 전국 각지의 미륵신앙과 19세기 말에 나타난 증산교 등도 습합 신앙 현상의 산물이다. 오늘날 사찰 안에 중앙의 본존불과 함께 뒤에 설치한 산신각, 칠성각 등은 바로 다른 종교와의 습합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물이다.

## 2부/ 다중적 구조사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 3) 문화사 구조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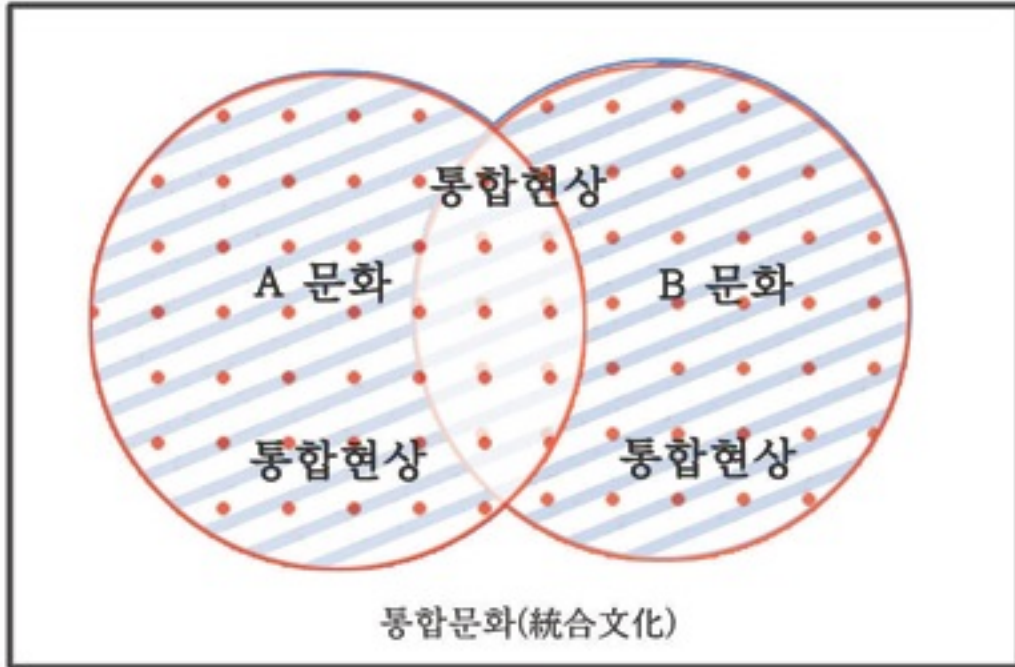
3개의 기본 구조/ 습합문화, 통합문화, 대립문화,

#### 한국문화사와 영국문화사의 구조

문화구조의 이해는 그 사회의 경제, 문화, 사회, 구성원의 성격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다. 예를들어 문화적 상품의 수출이나 문화 유입의 가능성을 그 문화구성원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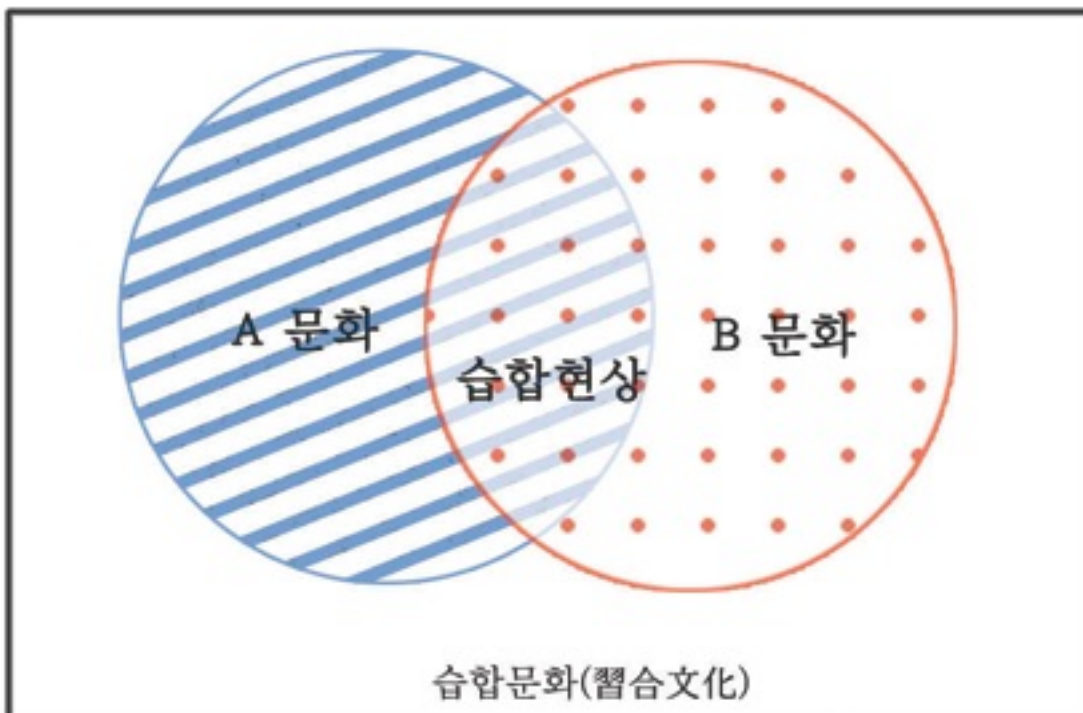
1)문화사 조합구조

<통합문화구조>, <습합문화구조>,<대립문화구조>



전하현© H.H.Jun

영국문화구조는 통합문화구조 입니다.



전하현© H.H.Jun



## 한국의 문화구조

다시 유교사상이 들어와 한국적 유교가 만들어지고,

유교사상  
한국적 유교

한국적 유교?  
중국에서 전래된 유교와 다른 한국적 유교.

이어 19세기 말에 들어온 기독교 사상이 다시 습합되어 한국적 기독교 문화가 된 것이지.

기독교  
유교사상  
불교사상  
도교사상  
토착문화(샤머니즘, 무격사상)

---

그럼 서로 섞이지 않고 공존한 경우는요?

서로 적당히 타협하고 대립하면서 공존하는 경우는 유럽이나 서구 문화구조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야.

영국의 문화구조

지금 영국의 문화구조도 그런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가톨릭  
기타  
개신교  
성공회  
(영국의 기독교 문화)  
이슬람 문화 등 소수민족 종교 문화

그러나 역사상에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는 스페인의 8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예를 들 수 있지. 북아프리카의 무어족이 스페인을 점령한 후, 이슬람 문화와 유대인들의 유대교 문화와 가톨릭교회의 기독교 문화 등 3개의 문화가 함께 사이 좋게 공존하며 혼합 문화를 만들어 냈지.



이슬람 사원



가톨릭 교회



유대인 교회

스페인 15세기 이후에는 다른 종교 문화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1530년대 무어족과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말았지.

그럼 한 나라에서도 각 시대마다 문화구조가 달라지네요?

당연하지.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구조

그런데 이런 문화구조까지 알 필요가 있나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자기가 누구인가 알려면 알아야겠지?

문화구조 → 정체성

왜 알아야 하는 거죠?

상대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나의 생각과 사고 방식의 배경이 어디에서 왔는가 알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문화구조 속에서 집단 민족성이나 개인적 사고가 형성되기 때문이지.





## 영국의 문화 구조는 어떤 것이죠?

첫째로 문화의 구조는 전통문화, 시대문화, 외래문화가 상호 대립적 관계 구조인 A형과 상호 타협적 관계 구조인 B형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B형 같은 스타일이지.



상호 대립적 관계 구조인 A형



상호 타협적 관계 구조인 B형

영국내의 각 문화들은 상호 타협적인 관계이지만 절대로 섞이거나 습합하는 일이 없어.

**한국문화구조**

한국문화 구조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한국 문화는 적극적인 상호 타협적 관계의 구조라고 할 수 있지

적극적 상호 타협적 관계구조인 C형

서로 섞이는 습합 현상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잡하네요. 중국의 경우나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의 경우는 A와 B형의 중간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의 경우는 B와 C의 중간 구조라고 할 수 있겠지.

어떻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타입은 다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지지.

한국과 어떤 구조이죠?

한국의 현재 문화구조는 시대문화와 외래 문화가 습합해 전통 문화를 배경으로 발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지. E와 F의 중간 구조라고 보면 될 거야.

전통문화 주도형 구조인 D형

시대문화 주도형 구조인 E형

외래문화 주도형 구조인 F형

영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 구조인가요?

영국은 D와 E의 중간 구조형에 가까운 구조를 보이고 있지.

E형 한국 F형

D형 영국 E형

2)'계층(계급)구조'와 '무계단 구조'

영국의 계층사회와 사회 신분구조









- 3)언어구조
- 4)종교문화구조
- 5)인종구조

1)문화사 조합구조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수용에 있어선 영국은 '통합문화구조'이고 한국은 '습합문화구조'다. 통합문화란 절충과 타협, 때로는 심각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문화구조이고, 습합문화란 기존문화가 절충과 타협없이 어떤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응한 <대립문화구조>가 있다. <대립문화구조>로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들 수 있다.

2)'계층(계급)구조'와 '무계단 구조'

한국문화사와 영국문화사는 똑같이 '계층(계급)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공통점이고 그들 각자의 문화와 사고 영역이 뚜렷하게 대별된다는 점이 또 공통점이다. 그러나 두 계층의 책임의식은 크게 대별된다.

3)언어구조,

집단내 통용되는 언어가 다름에 따라 그 집단의 성격, 문화가 대별된다. 예를 들어 벨기에, 캐나다는 2개의 언어구조, 스페인은 3개의 언어구조, 영국은 2개의 언어구조와 계층마다 다른 언어습관을 갖고 있다.

4)종교문화구조

대립문화구조 속에는 대부분 1개의 종교가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습합문화구조 속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나 고유의 특성으로 융합한 현상을 보이고, 통합문화구조 속에는 여러 종교가 존재하나 각자가 뚜렷한 자기성을 유지하고 있다.

5)인종구조

인종구조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아니다. 이것은 인종이 대립적인 위치에서 상호 문화구조를 견제할 때 특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 예를들어 캐나다의 퀘벡 분리주의자, 스페인의 분리주의, 영국의 스코티쉬, 벨기에의 플라미쉬 등

3)영국의 문화사 구조와 한국의 문화사구조

4)개인과 역사(가정문화의 태동)



그동안 열린 열린 강좌의 간추린 방송 강좌 내용이 04uk의 <공지사항>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국사랑 열린강좌 9회 1강 : 미술이란 무엇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9회 2강 : 미술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영국사랑 열린강좌 9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8회 1강 :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1 -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세계](#)

[영국사랑 열린강좌 8회 2강 :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2 - 정치와 종교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새정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8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7회 1강 :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1 - 영국의 미술사와 유럽의 미술사](#)

[영국사랑 열린강좌 7회 2강 :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2 - 왜 영국에서 미술이나 예술공부를 하는거죠?](#)

[영국사랑 열린강좌 7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6회 1강 : 감동을 주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6회 2강 : 감동의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6회 참고 자료\(PDF\)](#)



강의및 교재문의/[bookclub21@hotmail.com](mailto:bookclub21@hotmail.com)



<http://www.facebook.com/RPIInstitute>